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공모전 및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제출 아이디어 다음 학기 비교과프로그램 반영 등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수렴·글쓰기 역량 진작·명강의 소개 효과

21일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이하 센터)에서는 2018학년도 내가 만드는 비교과프로그램 공모전을 비롯하여 학습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명강의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내가 만드는 비교과프로그램 공모전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주제나 아이디어를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비교과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모전에 참

여하였다. 본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는 다음 학기 비교과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실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습지원 및 적응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시행해 오고 있다.

한편, 명강의 에세이 공모전은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을 진작시키고 명강의를 소개함으로써 우수한 수업의 요소를 발견하고 효과적인 교수법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에 대상을 수상한 김호학과 유모 학생은 "제가 감동받았던 교수님의 수업을 글로 표현하는 작업이 힘들었지만, 좋은 수업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에세이에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3월부터 시작한 학습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자신의 학습성과에 대해 성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습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 참여한 김모 학생은 "학습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공부한 과정을 돌아보고 이를 정리하면서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은정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유아교육과 교수)은 "학생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역동적으로 학습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자중심의 경진대회 및 공모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 21일 호원대학교에서 2018학년도 내가 만드는 비교과프로그램 공모전 및 학습포트폴리오경진대회·명강의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개최했다.

동성엔지니어링 김연태 대표, 건설인의 날 국토부장관상 수상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손성덕)는 김연태 (유)동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2018년 건설인의 날을 맞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1일 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김 대표이사는 2002년 2월부터 건축물 건립공사 중 기계설비분야에 참여한 이래로 건축물의 안정성, 쾌적한 환경을 우선으로 생산성향상과 에너지 절약으로 많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 해와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 공동 임대아파트 건립공사, 민간 공동아파트 건립공사 및 교육시설공사, 공공기관 건립공사, 사회 복지단체 시설공사 등 다수의 건축공사를 건립공사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참여한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후학 양성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김연태 기자

고창서 청문실, 청렴향상 사이버 교육 강화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은 청렴문화 분위기 조성 및 깨끗한 경찰상 확립을 위해 청렴 동아리와 함께하는 캠페인, 사이버 교육 독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사이버교육은 경찰 청렴가이드, 수사경찰 사이버 청렴교육, 사이버청렴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져있어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서성범 경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가야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고 바른 공생활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원광대 창업지원단 교직원들, 1,050만원 발전기금 기탁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창업지원단이 발전기금으로 1,050만원을 학교측에 기탁했다.



창업지원단이 기탁한 발전기금은 백현기 단장과 직원 11명 등 창업지원단 전체가 마련한 것으로 대학 내 창업 문화 확산과 성공 창업자 육성을 기원하는 위한 것. 백현기 창업지원단장은 "대학 내 창업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고를 구직에서 창의적으로 바꾸고, 참신한 우수 아이템으로 창업 도전을 희망하는 대학창업기업이 활동 가능한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기금전달 취지를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대학생 여름철 봉사활동

익산시가 2018 대학생 여름철 농촌봉사활동을 2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29일까지 7박8일간 익산 전역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생 여름철 농촌봉사활동은 연세대 학생 100여 명이 참여, 4개면 6개 마을회관에서 기거하며 마을 환경정비부터 고추군 설치, 가지수확, 메론 결순 따기, 논 잡초제거 등과 같은 농사일을 도우며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봉사활동 기간에는 각자 역할 분담을 하고 휴대폰을 반납하는 등 스스로 정한 규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며 하루 일과를 끝내고 저녁 식사 후에는 우리농업의 가치와 우리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으로 학생들이 준비해온 자료를 가지고 FTA이후 농업의 미래와 non-GMO와 같은 먹거리주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북적십자사, 입실군 취약계층 희망풍차 물품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는 21일 입실군청에서 취약계층 희망풍차 물품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적십자사 전북지사는 박진두 부군수를 만나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삼성전자에서 후원받은 4만원 상당의 주식과 부식 세트 105개를 지원했다. 전달식 행사에는 이준용 사무처장과 정일윤 입실군적십자봉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물품은 입실군 각 읍·면 사회복지담당자와 적십자봉사원을 통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 전달하며 온정을 나눌 계획이다. 박진두 부군수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는 적십자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전종영 기자



루미컴(주) 이복수, 전주교대에 대학발전기금 200만원 기탁

루미컴(주) 이복수 대표가 최근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에 200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을 기탁했다. 루미컴(주)은 전주소재 LED응용제품, 반도체부품, 반도체소자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써 이복수 대표는 지난 해 도청에서 주관한 '2017 전라북도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중소기업인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복수 대표는 "우리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전주교대가 교육환경개선, 교육기부사업 등 대방면에서 뜻을 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기탁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우영 총장은 "우리대학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학 발전을 위해 기탁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대학의 학생들이 더 올바른 인성과 지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